

“건강海요! 안전海요! 완도 명품”

완도군 광어 소비촉진 마케팅

장보고수산물 축제 앞두고

郡, 국내외 시장 개척 활발

완도지역에서는 예로부터 “광어(넙치)가 앉은 자리는 뽕도 맛있었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광어는 깨끗한 곳에서만 서식하는 귀한 어류로 대접받아 왔다.

광어는 전복과 더불어 완도군을 대표하는 양식어종으로서 그동안 완도읍과 신지면을 중심으로 어민들에게는 효자 상품으로, 국민들에게는 맛좋은 생선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15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를 앞두고 완도군이 지역 대표수산물인 '완도 명품광어' 브랜드 마케팅에 나섰다. 또 군은 광어 소비촉진을 위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LA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완도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광어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이 적어 맛과 영양면에서 최고의 맛으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차별화된 광어 생산은 깨끗한 바다환경과 어민들의 정성에서 비롯된다.

완도 바다에는 매일 정화시킨다는 잘피(진질)와 낙지, 소라, 장어, 광어 등 다양한 어종들이 갯벌에 동지름 들고 공생 공존



완도군이 완도대교를 지나 완도읍으로 진입하는 4차로 육교에 '건강海요! 안전海요! 완도 명품 광어' 현수막을 내걸었다.

한다. 더욱이 어민들은 지난해 10월 '명품 광어 생산 선포식'을 갖고 항생제 사용하지 않기 등 자정운동 전개와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서약한 바 있다.

군은 최근 완도대교를 지나 완도읍으로 진입하는 4차선 도로에 '건강해(海)요! 안전해(海)요! 완도 명품 광어'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특히 군은 '장보고수산물 축제'에서 생선회를 진공 포장해 판매도 한다. 생선회의 맛을 좌우하는 탄력도와 신선도를 오래 유지해 현장에서의 맛을 그대로 가정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군은 해외시장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지난 6일 완도를 방문한 미국 LA 우리방송 김홍수 회장은 “청정바다 완도의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완도군수가 인

증만 한다면 충분히 미국에서도 시장성이 있다”며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희망적인 반응을 보였다.

추관호 수산양식과장은 “완도는 싱싱한 활어와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주산지”라며 “장보고 수산물 축제를 찾아 축제도 즐기고, 싱싱하고 질 좋은 ‘완도 명품 광어’도 맛보는 재미를 놓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한편 완도군은 5월 1일부터 9일까지 해변공원 일원에서 '2015 장보고 수산물 축제'를 개최한다. 군은 매년 5월에 해양문화 행사로 치러진 '장보고 축제'를 올해부터 '장보고 수산물축제'로 변경해 수익창출을 위한 행사로 추진한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진도군, 도시민 귀농자 유치 적극 나서

진도군이 도시민 귀농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인)는 도시민 농촌 유치사업의 하나로 지난 16~17일 1박 2일 동안 천안 연암대학 귀농농업창업반 19기 교육생 35명을 대상으로 농촌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교육생들은 진도 특산품인 울금 재배·포장 체험 및 가공 공장 견학 등 다양한 농장을 방문하고, 김전비와 지조 재배

지, 홍주 가공공장 등을 견학했다.

또 진도명품관에 위치한 진도 문화체험장에서 진도 아리랑, 씨김국, 다시래기, 북춤 등 진도 문화체험을 하며 남도 문화의 깊은 감동을 맛보기도 했다.

특히 교육생들은 군 농업기술센터의 실습포장에서 진도 구기자, 고추, 지조, 단호박 등 시험 재배 상황을 둘러보고 진도의 특용 작물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진도=박희성기자 hypark@

태양광발전 난개발 방지

완도군, 가이드라인 마련

완도군이 환경과 조화된 태양광발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완도군은 “최근 난립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15일자로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태양광발전 시설은 사업규모에 따라 ▲3000kW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100kW이상 ~ 3000kW미만은 광역 시·도 ▲100kW미만은 시·군에서 허가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해당 시·군의 개발행위 허가라는 과정을 거쳐 시설하게 된다.

현재 전기사업법에 따라 태양광 발전허가를 받은 후 사업부지의 타당성과 관련해 개발법(산지법, 농지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률에 특별한 제재사항이 없는 한 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전국적인 현실이다. 이에 완도군은 마을과 주요 도로와의 이격거리 등을 규정해 합리적인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하게 됐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해남 대흥사서 탄신 495주년 서산대제 봉행

24일 보현전 특설무대

호국명승장 서산대사

삶과 사상 선양 행사

1592년 임진왜란 당시 팔도승군(僧軍) 총사령관으로 승군을 지휘하며 평양성 탈환에 기여한 호국 명승장 휴정(休靜) 서산대사(1520~1604년)의 삶과 사상을 선양하는 행사가 해남에서 열린다.

해남 대흥사는 24일 해남 대흥사 보현전 특설무대에서 ‘탄신 495주년 호국대성사 서산대제’를 개최한다. 서산대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대흥사 회주 보선 스님, 호남지역 6개교구 본사 주지스님을 비롯해 김중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낙연 전남도지사 등 불교계와 정관계 인사, 대한불교조계종 군중교구, 신도 등 3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대흥사와 불교사회연구소, 서산대사 호국정신 선양회가 주관하는 이번 서산대제는 일주문에서 보현전으로 이어지는 예제관 행렬 재현을 시작으로 보현전 특설무대에서 표충사 향례홀기를 복원한 유교식 제향의 서산대사 국가제향 재현, 서산대사 행장 소개와 법어, 헌다, 헌화, 등 순으로 봉행된다.

이와 함께 성보박물관 광장에서는 ‘제21회 나라 사랑 글쓰기 사생대회’가 열린다. 대회는 운문·산문·사생·서예 4개 부문에 걸쳐 모두 1000여 명의 초, 중, 고등학생이 참여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호국대성사인 서산대사를 추모 선양하기 위한 서산대제를 통해 호국충혼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호국의승(義僧)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과 함께 서산대제를 국가제향으로 승격 봉행할 수 있도록 대흥사와



호국 명승장 서산대사(1520~1604년) 탄신 495주년을 기리는 행사가 24일 해남 대흥사 보현전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지난해 진행된 예제관(禮祭官) 행렬 재현 모습. <해남군 제공>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대제는 정조대왕 때부터 매년 봄·가을 국가제향으로 봉행돼오다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중단됐다. 이후 대흥사에서 20여 년 전부터 불교식으로

제향을 봉행해오다가 대흥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옛 문헌 ‘표충사 향례홀기’와 ‘진설도’ 등의 기록을 근거로 2012년 유교식 국가제향으로 복원해 매년 봄에 봉행하고 있다. /해남=박희성기자 dia@

해남 문화·역사·관광지 두루 돌아보는

해남 씨티투어 ‘누비고’ 내달부터 운행

해남의 문화와 역사, 관광지를 두루 돌아볼 수 있는 해남 시티투어 ‘누비고’가 5월 2일부터 운행한다.

해남군은 “KTX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급증하는 관광객 유치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해 해남을 방문하는 여행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남 시티투어 ‘누비고’를

운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본격 운행에 앞서 최근 해남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자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주)해남관광여행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했다.

‘누비고’는 오전 9시 나주역에서 출발해 오후 6시까지 2 코스로 나누어 격주로 운

행한다.

1 코스는 고산 유적지와 대흥사, 두륜산 케이블카, 땅끝마을을 둘러볼 수 있다. 2 코스는 고산유적지, 우항리 공룡화석지, 우수영 관광지를 경유한다.

요금은 나주역에서 탑승할 경우 성인 8000원, 청소년 5000원, 어린이 3000원, 해남터미널에서 탑승할 경우에는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이다. 사전예약은 27일부터 인터넷(www.haenam.go.kr)과 전화(061-532-9090)로 하면 된다. /해남=박희성기자 dia@

상무 Biz Center

즉시입주가 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관장업종	면적
1층	편의점, 공인중개사사무실	잔여 128㎡
2층	사무실	잔여 1201㎡
3층	사무실	1629㎡
4층	사무실	1267㎡
5층	사무실	1400㎡
6층	사무실	임대완료
7층	사무실	1400㎡
8층	사무실	1383㎡
9층	사무실	1367㎡
10층	사무실	1342㎡
11층	사무실	1307㎡
12층	사무실	임대완료
13층	사무실	임대완료
14층	사무실	잔여 111㎡

* 임대료 3.3㎡당 25,000원(4층 27,000원) 관리비 3.3㎡당 9,000원

상무비즈센터 (구.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치평동 1210-4)

임대관리 010-7570-7525
관리실 : 062)381-5551 FAX : 062)384-5551

해숫음 부동산

수완지구 현진에버빌 아파트임대

▶ 광산구 수완동 933 해솔 현진에버빌
1단지 1층 / 53평
정남향 / 초중고 인접 / 로얄동 / 즉시입주가

◆ 전세 4억
(월세 보2억/월100만원)

공인중개사사무소 674 - 2006